

# 삶과 예술, 그 가깝고도 깊은 골짜기

세 작가가 그려보인 우리시대 '예술가의 초상'

박덕규

문학평론가

지난해까지 일간지와 문예지에 각각 연재되어 주목을 끌었던 '예술가소설'들이 올해 들어 차례로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초에 나온 강석경 장편소설 「가까운 골짜기」와 2월에 나온 유익서 장편소설 「민꽃소리」가 그것이다. 여기에 역시 문예지에 연재되었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출간된 이제하 장편소설 「소녀 유자」를 보태어 찬찬히 가늠해보면, 우리 문학사에 '예술가소설'이라는 특징적인 유파를 위한 평가와 진단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는 기대어린 권고도 해봄직하다.

이전에도 김동인의 「광화사」나 이제하의 화가소설들, 이청준의 명창 이야기 등이 예술가소설로 평가된 적이 있었다 하겠으나, 비록 세 권뿐이긴 해도 우리 문학사에서 이번처럼 만만찮은 수준의 예술가소설이 동시에 등장한 예는 없었던 듯싶다. 더욱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은 자기 분야에 관한 한 어떤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다. 작가들 또한 스스로 예술가이거나(이제하), 그 예술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양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로(유익서는 이전에도 판소리 명창에 관한 소설을 쓴 바도 있으며, 강석경 역시 상당한 미술적 이력을 가진 작가이다), 이 예술가소설로써 예술가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의 곱절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있다.

## 예술가의 삶이 차지하는 자리 캐물어

예술가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는 이 소설들 속에 충분히 암시되어 있다. 「가까운 골짜기」의 예술가인 분청도예가 회조는 처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도예에 열중하는 시간이 아니면 술과 방랑 속으로 도피해버리거나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다른 예술가 여인과 사랑의 정을 나누기도 하는 타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 특히 아내의 그의 예술을 이해하며 인고하는데, 그는 가족의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예술만 내세우는 이기주의자이며,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학하는 무절제의 사람이다.

「민꽃소리」의 예술가인 대금 명인 정명재는 태어날 때부터 기인이었다. 역시 대금 명인이던 정동환의 피를 받은 아들이긴 하지만 배넛병신으로 다리 불구예다 눈이 애크인 그는 어릴적부터 철저한 배타주의자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자였다. 그의 대금 수준은

현실과의 단절감이 깊어지고 자연의 소리와 의 교감이 깊어질수록 그 절을 더 높여간다. 따라서 그의 현실적 패배는 물론이요, 그의 대금에 심취되어 심신을 다해 그를 보필하던 여인 최양수의 희생 또한 예정된 일이 된다.

「소녀 유자」의 전제상황으로 놓인, 이제하의 출세작 「유자약전」에는, 위의 두편에서 드러나는, 예술가는 주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예술을 빛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삶 그 자체로 대항하는 화가 유자의 비밀상적인 삶이 희화적으로 그려지고

**예술가의 삶을 소재로 삼은 만만찮은 수준의 '예술가소설'들이 연이어 출간됐다. 이들 소설은 삶 속의 예술과 초월로서의 예술이 어떻게 부딪치는가를 드러냄으로써 예술가의 삶에 대한 일반의 통념들과 맞싸우고 있다.**

있거니와, 이들 예술가소설들은 예술가의 삶에 대한 일반의식을 재확인시키고 그 인식과 맞싸우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예술가의 삶과 그 예술이 접하는 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캐물어 확인해 나간다.

「가까운 골짜기」에서 분청도예가 남편을 지켜보는 화자인 아내는 남편의 예술을 존중하고 그 삶을 이해하며, 그 이기주의적인 삶에 의한 때때로의 가장 불화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인내한다. 그러나 쉽사리 전통적인 여성의 자리로 옮겨앉지 않고 그 예술가의 삶과 더불어 산재된 동시대적 사회통념들과의 인식적 대립을 불사하는 편에 있고자 노력한다. 그 통념들이란 이를테면 예술가 스스로의 자기편리적 세계해석, 이데올로기 지향자들의 허위인식, 여성의 자기합몰 등이며, 일상에서 부딪치는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일깨워 하나도 놓침없이 대결하고 있는 그 과정이야말로 그 자체로 '삶 속의 예술'이라는 지성적 예술관을 대변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인식은 예술가의 주변인이 보는 가설일 뿐, 예술가는 그녀가 아니라 유아독존의 그녀 남편인 고로, 그녀가 생각하는 '삶 속의 예술'과 남편이 보여주는 '삶으로부터의 초월로서의 예술' 사이에는 아주 가깝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가까운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현실과의 공존에서 완전한 예술지향으로

「민꽃소리」는 전통음악 수련자로서 판소리와 가야금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나-최양수가 현실주의자 집안과 가야금 연주자로서의 열린 길을 뿌리치고, 정명재의 대금을 위해 자기 삶을 내던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은 정명재의 생모였던 옥주여인의 삶이 암시하듯, 현실-예술의 공존적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예술지향의 삶으로의 이행을 담고 있으며, 끝내 예술성취의 동참자의 자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현실로부터의 참담한 보복을 당하는 수순을 밟는다. 나-최양수는 자신의 예술을 버리고 보다 더 완벽한 '혼의 예술'을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예술을 사회통념 속에 가두어 이해하려는 현실세계로부터의 초월로서의 예술관을 완성해 보인다. 그 예술은 문학평론가 김현의 지적처럼 '낭만적 예술의 한 극점'이다.

「소녀 유자」는 삶 자체를 예술로 살다간 화가 유자를 영화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아마추어 영화인들의 영화만들기 과정을 담고 있다. 문학평론가 진형준은 이제하소설의 예술가, 특히 유자가 감행하는 일반적인 통념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소극적으로는 "현실가치에 물들어 있는 세상사람들의 물이 해와의 싸움"이며, 적극적으로는 현실가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이 가하는 위해에도 쓰러지지 않으려는 싸움"이라 했지만, 그 유자를 회상하고 재생하는 내용인 이 소설에 오면 그 싸움을 다시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또다른 의미의 '세상사람들의 물이 해와의 싸움'의 뜻을 내포하게 된다.

이 세권의 소설집을 통하여 우리는 예술가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의 흐름을 추출해볼 수 있다. 그 흐름은 이렇게 상승된다. 첫째, 예술가의 삶은 사회인습과의 마찰

이 필연적이다. 둘째, 따라서 예술가의 삶은 가까운 주변 생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셋째, 예술가의 삶은 끝내 스스로 현상적 불행을 야기한다. 이 통념의 흐름 다음 단계에, 예술가의 삶은 현상적 행복행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의 초월적 가치획득 여부에 의해 평가 받는다는 인식이 기다린다. 이 인식은 예술이나 예술가의 삶이 개인에게 객체화될 때라야 가능한 인식이다. 현실세계의 사람들은 예술을 객체화된 자리에서만 완상하는 자유를 가지며, 주체화된 자리에서는 여전히 현실/예술의 간극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 예술의 승리와 예술가의 패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술가는 현실에서의 패배와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술을 하게 되는가. 칼 융이 일찍이 말했듯, 예술가의 창작력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욱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민꽃소리」의 정명재는 자신의 몸을 파괴시키고, 물론 그를 떠받드는 최양수의 손길도 뿌리치고 끝없이 자연의 소리를 찾아나서며 소리를 완성해 나간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술가의 예술이 지향하는 바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패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주의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일상의 초월 쪽으로 열려 있다. 그 완성은 멀고 험하다. 그 완성은 다시, 현실의 희생과 패배를 수반한다. 이땅의 모든 예술가에게 그 희생의 길을 가야 성취한다고 재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길을 가는 예술가의 삶은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은 그 소중함을 좇음으로써 또다른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다.